



최윤배 교수(장신대)

### 1. 서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가능성을 늘 만날 수 있으며,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진 거북이조차도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여기서 생물체로서의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장수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상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주제는 모든 생물체는 물론 모든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 이 논문은 201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비록 우리는 유아나 청소년의 죽음을 뉴스 등을 통해 매일 만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노년기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죽음과 노년의 상관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다. 둘째,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7080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부터 한국의 노인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죽음, 노년, 죽음과 노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 기독교적 죽음 이해, 기독교적 노년 이해를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죽음과 노인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 II. 기독교적 인간 이해<sup>1)</sup>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의 생존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미래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들은 인간에 관한 모든 연구(인간관 또는 인간론)에서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범주 안에서 답변될 수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인간론은 철학의 한 부분이었다. 심리학 역시 인간 문제 특히, 인간의 영혼을 취급하고 있다. 사회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과 관련해서 인간에 관심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은 심리학과 사회학을 결합시켜서 인간을 취급하고 있다. 법학과 의학과 윤리학에서도 인간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법학과 윤

1) 최윤배, 『성경적 개혁적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적 기독교적 조직신학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181-186, 참고 529.

리학에서는 무엇보다도 행동의 주체로서 인간이 중요하고, 의학에서는 인간의 건강문제가 중요하다.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에서도 주체로서 인간 문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더욱 강조되는 점은 각각의 관점에서 이해된 인간 본질 자체에 있다.

일반적인 인간 이해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인간이 단지 동물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생물학적 인간관, 인간을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문화적 인간관, 인간을 일반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종교적 인간관, 인간을 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인간관, 인간을 관념(觀念)의 관점에서 보는 헤겔의 관념론적 인간관 등이 있다. 또한 이분법적(二分法的) 인간관은 육체는 영혼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그리고 죄적(罪的)인 것으로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영혼은 육체보다 우월하여, 선한 것으로, 신적인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삼분법적(三分法的) 인간관은 인간의 영은 신적인 존재이며, 육체는 악한 존재이며, 혼은 영과 육체의 중간에 있는 중립적인 존재로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선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악하다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인간관은 위에서 우리가 열거한 일반 인간관의 여러 가지 유형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기독교적 인간관은 일반 인간관과 전적으로 일치하거나, 전적으로 불일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인간관은 일반 인간관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인간관은 일반 인간관이 가질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인간관은 성경의 계시로부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coram Deo*)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창 2:7; 엡 4:24). 종교개혁자 칼뱅(J. Calvin, 1509-1564)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상호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sup>2)</sup>

2) 참고, 최윤배, "Gerrit Cornelis Berkouwer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Th.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sup>3)</sup>

성경에 의하면,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전인'(全人)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 image = imago)을 따라 우리의 모양(테무트 = likeness = similitudo)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바다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sup>4)</sup>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화(人間化)나 인간의 신격화(神格化)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양자는 결코 혼합되거나 혼동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어떤 형태의 존재유비(*analogia entis*)도 허락되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양자의 질적 동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

M. 학위논문, 1988).

3) John Calvin, 『기독교강요』(1559), I i 1.

4) 창세기 1장 26-28절.

나라, 양자의 관계성을 말할 뿐이다. 곧,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이다. 관계란 말은 서로 구분되는 두 인격적 존재의 대칭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뜻한다.

또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 이것은 인간의 동물화(動物化)나 인간의 물질화(物質化)나 동물과 물질의 인간화를 절대적으로 배제한다. 인간은 창조 속에서 그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창세기 1장-2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은 인간에 대한 창조로 끝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중에서 최고를 장식한다. 창세기 1장 26-28절의 서두의 구절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창조마다(창 1:3, 6, 9, 14, 20, 24, 26)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앞의 다른 창조와는 달리 인간의 창조 때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세 인격들과 서로 상의하신다. 인간의 특별한 위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축복과 그에게 주시는 임무 속에서 잘 나타난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의논하시는 측면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이 받은 특별한 지위를 잘 나타내준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구별되고, 이웃(사회) 및 자연과 세계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구별된다. 우리가 보기에 불포는 인간의 사명을 ① 이 세상에 살면서, ② 동료를 사랑하고, ③ 인간이외의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④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간파했다.<sup>5)</sup> 이것은 영구불변의 진리로서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잘 요약되어져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출 20:1-17; 신 5:1-21; 마 22:37-40).

인간은 육체의 요소와 영혼의 요소를 구성된 전인으로 창조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אֲדָמָה)으로 사람(אָדָם)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נֶפֶשׁ)이 되니라.”(창2:7) 위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부터 지어졌다. 즉,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존재이다(창 3:19; 고전 15:47).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이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9:16절의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는 깊은 기독교적 인간학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비교, 사 45:9, 롬 9:20).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의 코 속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다(비교, 사 57:16). 흙과 생기라는 두 요소(영 또는 영혼 + 육체)로 구성된 한 몸으로 이루어진 ‘네페쉬’, 즉 전인(全人)으로서 창조된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 죄인으로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렇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창 9:6).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약 3:9). 성경에 의하면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고 있다(창 5:19; 시 8:6; 고전 11:7; 엡 4:24; 골 3:10).

갈뱅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시의 모습은 육체, 정신, 지각, 마음에 이르기까지 ‘순전성’(純全性, *intégrité*) 그 자체였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 심한 훼손을 입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세상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5) Hans Water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문희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왜관: 분도

출판사, 1985), 370-380.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회복될 그 날을 소망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잘 나타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

기독교적 인간관이 일반 인간관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도 수용하지도 않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인간관은 일차적으로 성경의 계시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로서 ‘전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현실적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으로서 그의 속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심히 부패하고 훼손되어 세상적인 일에는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능하다.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속된 인간’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동료 인간, 사회, 자연, 우주)에 대한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과 완성을 소망한다.

### III.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서혜경은 자스트로(Zastrow)의 주장을 근거로 죽음의 유형을 의학적 죽음, 사회적 죽음, 신학적 죽음, 법적 죽음으로

분류한다.<sup>6)</sup> 황명환은 죽음의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죽음을 “무신론적 죽음이해”(세속적 죽음이해, 비세속적 죽음이해-巫教, 유교, 도교), 범신론적 죽음이해(힌두교, 불교, 뉴에이지 운동), 유신론적 죽음이해(유대교, 이슬람교)로 분류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sup>7)</sup>

예일대학교에서 17년 연속 명강의를 했던 셸리 케이컨(Shelly Kagan)은 죽음 이해를 크게 두 가지, 곧 이원론(dualism)과 일원론(monism)으로 나누고, 일원론을 다시 물리주의(physicalism)와 유심론(唯心論, idealism)으로 나누었다.<sup>8)</sup> 이원론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일원론은 영혼 없는 육체나 육체 없는 영혼을 가진 인간을 주장할 수 있다.<sup>9)</sup>

한자경은 동서양의 인간 이해라는 주제 하에 희랍, 기독교, 불교, 유가의 각 죽음 이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지적했다. 한자경에 의하면, 희랍 사상은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이데아(Idea)로,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죽음을 “불멸의 영혼이 이데아계로 복귀”를 주장하고, 불교는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심(心)으로, 인간의 본질을 해탈(解脫)로, 죽음을 “윤회를 벗어 심(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이해하고, 유가는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리(理)로, 인간의 본질을 도덕으로, 죽음을 “리(理)에 따른 기(氣)의 흩어짐”으로 이해한다. 한자경에 의하면, 기독교는 인간과 우주의 기원을 신(神)으로, 인간의 본질을 신앙(信仰)으로, 죽음을 “죽은 자가 신에 의해 부활됨”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죽음 또는 죽음 이후의 인간 여정에 대한 이해는 네 관점이 모두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죽음이 결국은 인간을 인간 또는 우주의 근원으로

6) 서혜경, 『노인죽음학개론』(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2009), 23-24.  
 7) 황명환, “죽음이해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신학박사 학위 논문, 2010), 87-271.  
 8) Shelly Kagan, *Death*, 박세연 역, 『죽음이란 무엇인가』(서울: 엘도라도, 2012), 24-27.  
 9) 윗글, 24-27.

복귀시키는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만은 공통적이다.”<sup>10)</sup>

일반 철학과 종교와는 달리 과학이나 의학의 관점에서 죽음은 아주 단순하다. “과학에 있어 죽음은 유기체적 생명의 끝 즉 삶의 끝이다.”<sup>11)</sup> 어느 순간을 죽음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인 논의는 아직도 열려 있는 상태이다. 어느 순간을 죽음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의학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호흡이 정지되는 폐(肺) 기능 정지와 심장이 뛰지 않는 심장 기능 정지를 기준으로 삼아 죽음을 정의하는 심폐기능설(心肺機能說)이 있고, 다른 하나는 뇌 기능의 정지를 기준으로 삼아 죽음을 정의하는 뇌사설(腦死說)이 있다.<sup>12)</sup>

#### IV.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1.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기독교적 이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죽음 문제에서도 기독교적 죽음 이해는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도 매우 다양하다.<sup>13)</sup>

성종현은 현대기독교신학자들의 죽음 이해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sup>14)</sup> 죽음에 대한 첫째 이해 특징은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비성화(Entsakralisierung)”이다. 크뤼거(H. Krüger)나 마르티(K. Marti) 등이 이해한 이 같은 죽음 이해에서는 죽음이 조롱받고, 무의미한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해석되어, 죽음은 엄숙성과 진지성을 상실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둘째 이해 특징은 죽음의 세

속화(Säkularisierung) 현상이다. 퀴블러-로스(E. Kübler-Ross)는 비성화작업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죽음의 세속화 현상을 특히 죽어가는 입원환자들의 치료실에서 발견한다. 죽음 이해의 셋째 특징은 죽음의 타부(Tabu)화 현상이다. 폭스(W. Fuchs)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죽음의 주제를 그들의 삶과 의식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밀어내어 사유화시키고, 타부시 하고 있다. 죽음 이해에 대한 네 번째 특징은 죽음의 미화(美化) 내지 로맨틱화이다. 시인이나 예술가들(R. Wagner, R. M. Rilke, E. Hemingway)은 죽음의 찬가를 부르고, 무지몽매한 영혼들은 그 찬가위에서 춤을 춘다.

성종현은 현대기독교신학자들의 죽음 이해를 크게 세 가지, 곧 완전죽음설(Ganztod-Theorie; K. Barth, W. Elert, R. de Pury, E. J. ngel 등), 영혼불사설(영혼불멸설), 깊은 잠 등으로 분류한다.<sup>15)</sup>

##### 2. 죄와 죽음의 관계

###### 1) 죄

###### (1) 죄의 기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사 6:3), 의로우신 분이시며(신 32:4; 시 92:15), 세계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창 1:31), 하나님은 결코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욥 34:10).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에 일부의 타락으로부터 생겼다. 천사의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교만이였다. 하나님께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유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15) 윌클, 297-301.

10) 한자경, 『동서양의 인간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서광사, 2001), 238.

11) 윌클, 182.

12) 윌클, 183.

13) 김균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17-201.

14)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96-297.

빠질까” 함이다(딤후전 3:6).

인류의 역사(歷史) 안에 있는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마귀)은 뱀을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했다(요 8:44; 롬 16:20; 계 12:9).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고후 11:3; 전 7:29; 사 43:27; 호 6:7; 딤후전 2:14),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여 모든 인류에게는 물론 모든 창조세계에까지 죄가 퍼지게 되었다(욥 14:4; 롬 5:12, 18-19).

### (2)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의 전인(全人)에 전염됨으로써 그의 본성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 같은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른다(창 6:5; 시 14:3; 롬 7:18; 롬 17:9). 죄의 샅은 사망이다(롬 6:23; 창 2:7; 롬 5:12, 17).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창 3:19)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엡 2:1, 5, 12; 4:18)을 맞이하게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마 25:41; 마 10:28; 살후 1:9; 히 10:31; 계 14:11).

### (3) 죄의 종류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악된 상태와 조건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original sin)라고 부른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원죄는 인류의 원초적인 뿌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명 속에 현존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모방한 결과가

아니며, 인간의 삶을 오염시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의 내적 뿌리가 된다. 원죄는 원초적인 죄책과 원초적인 오염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산출한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actual sin) 또는 ‘실제적인 죄’라고 부른다. 자범죄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의식적인 의심이나 악한 계획 또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의식적 욕망이나 탐욕 같은 내적 자질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짓는 죄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마 12:31-32; 히 6:4-6; 히 10:26-29; 요 5:16). 죄는 불순종이며, 불신앙이며, 불법이며, 불의이며, 교만이며, 반역이다.

## 3. 죄와 죽음의 관계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주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즉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대체로 죄론과 결부되고, 영원한 죽음은 일반적으로 일반종말론과 결부되지만, 개인종말론을 다루기 전에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비지식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죽음과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 1) 육체적 죽음

#### (1) 죄와 죽음의 관계

교회의 역사(歷史)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펠라기우스와 소치니우스 등)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상하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그릇되게 주장했다. 그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다. 구약성경은 죽음을 악으로 이해한다. “본문은(전 9:2-10, 필자주) 죽음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악이라고 이해한다(9:3).”<sup>16)</sup> 신약성경도 죽음을 형벌, 곧 “죄의 삯”이라고 말씀하신다(롬 6:23상).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시 90:7, 11), 하나님의 심판이며(롬 1:32), 하나님의 정죄이며(롬 5:16), 하나님의 저주(갈 3:13)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죽음은 가끔 미화(美化)되기도 한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매우 초연한 상태에서 독배를 마시면서 죽음을 맞이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기도 하고, 흠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마 26:37-38)고 직접 말씀하셨다.

## (2)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요 11:25-26)

육체적 죽음은 육체(몸)와 영혼의 분리(分離)로서 동물적 생명이나 육체적 생명이나 자연적 삶의 끝(종결)을 의미한다(전 12:7; 마 10:28; 눅 12:4; 행 7:59; 약 2:26). 성경은 이 같은 육체적 죽음을 ‘잠자는 것’(요 11:11),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고후 5:1), ‘혼이 나가는 것’(행 5:10), ‘흠으로 돌아가는 것’(창 3:19) 등으로 표현한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 아주 엄격하게 인류를 심판하셨다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범죄한 즉시 인간에게 가장 완전한 의미의 죽음이 도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

16) 배정훈, 『하늘에서 오는 지혜: 잠언, 전도서, 욥기에 대한 정경적 이해』(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173.

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은혜’(자연은혜)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작용을 어느 정도 제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롬 5:12-21).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

육체적·자연적 죽음만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존재가 이미 끝났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생명과 죽음은 존재와 비존재의 대립이 아니라, 존재의 다른 형태로서의 대립이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해한 대로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요 3:4). 니고데모는 육체적 생명과 육체적 죽음만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요 3:5-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요 3: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고(엡 2:1, 5, 12),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었다(엡 4:18).

## (3)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의 의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 모두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로서 소스라칠 정도로 무섭고도 끔찍한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이 그들 각자에게 가져다주는 유익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흑과 백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육체적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죽음을 면제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현관문이라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지옥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반면, 비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얻어 영원히 산

다(단 12:2; 마 25:46).

### 3. '중간상태'에 대한 다양한 이해

우리는 '중간상태'(status intermedius)를 신자의 죽음의 순간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사이에 인간의 상태와 신자의 특별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불멸설에 대한 비판은 가끔 중간상태론으로 귀결된다. 중간상태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

#### 1) 연옥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연옥에 대한 사상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사상이다. 수 세기 동안 내려온 이 전통은 마침내 1274년 연옥 교리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은총 교리와 참회 교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트렌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사람들은 중보기도, 미사희생,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 연옥설에 대한 전거 자료로서 특히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속죄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카비 후서 12:42-46절과 가끔은 고린도전서 3장 13-15절이 사용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연옥 속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언급이 더 적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는 연옥설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사를 드릴 때조차도, 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새 요리문답서」(1966)도 여기에 대해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연옥설과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종교개혁자들은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제2 스위스 신앙고백」(Confessio Helvetica Posterior, 1566)의 제 26항은 '나는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영생과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정결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연옥설을 반박한다. 바빙크는 연옥설은 신자들의 무관심과 불확실성을 조장하여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의 충족성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킨다고 로마 가톨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2) 영혼 이사(移徙)

중간상태를 영혼의 이사라고 이해하는 것은 환생(還生)과 결부된다. 이 개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사상인데, 오늘날 새로운 형태들 속에서 발견되며, 그 중요성이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 사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 안에 무엇인가 남아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도 지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엇이 현재의 생애 이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상에 이미 있어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생 사상의 근원을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환생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인간의 다가오는 미래의 운명은 그의 현세에서 행한 선행이나 악행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윤회사상이 나오며,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 생긴다. 영혼이 세계영혼과 하나가 된다는 직관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그리스 사상, 즉 오르피스 신화, 피타고라스철학, 플라톤 안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던 이 환생사상은 아마도 동양사상으로부터 기원했다. 영혼의 신적인 부분의 선재와 영혼의 이사는 플라톤 사상에 속한다. 환생사상이 철학과 인지학(人知學)과 많은 열광주의적 운동들과 뉴 에이지(New Age) 운동 안에서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기 전에, 이 사상은 19세기와 20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옛 형태나 새로운 형태 속에 있는 환생 사상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배한다. 여기에 진화사상이 첨가되어 사람들은 세계의 과정이 보다

좋은 세계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의 환생사상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었지만, 지금의 환생사상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고양(高揚)된 생각을 갖게 한다. 죽을 때, 개인적 형태는 사라지지만, 인간의 보다 고양된 ‘자아’ 또는 영혼 또는 영적인 본질은 다시 새로운 모양과 형상을 취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환생 사상도 기독교 신앙과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 우리는 한 번만 이 땅에서 산다. 죽음의 심각성은 삶의 갈등에게 해답을 제시해야만 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인간은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다.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은 자기를 인간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제거하고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높고 완전한 실존의 성장과정의 요구 또는 약속에 의해서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되어진다. 환생론 전체는 위험한 기만의 소리다.

### 3) 영혼수면설(靈魂睡眠說)

영혼수면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죽은 뒤에 영혼은 무덤 속에서 마치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듯이 무의식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부활할 때 깨어난다는 주장이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와 17세기의 소치니우스주의의 중간상태에 대한 이해는 이와 동일하다. 칼뱅은 그의 저서 『영혼의 잠』(*De Psychopannychia*, 1534, 1536, 1542)을 통해서 재세례파들의 영혼의 잠이라는 사상을 비판했다. 칼뱅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며, 그들의 영혼은 잠자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교개혁의 교리 안에는 신자들

이 죽은 뒤에 일종의 어두컴컴한 상태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는 사상은 추호도 없다. 오늘날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속에서 잠자는 상태 속에서 계속되는 실존에 대한 사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상에 대한 전거로서 성경에 ‘잠자다’,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내세우지만, 이 구절들은 주석학적으로 영혼수면설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 4) 사멸론(死滅論)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멸론은 유물주의적이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죽는 즉시 몸이 부활하여 보이지 않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보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sup>17)</sup>

### 5) 중간상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

성경은 중간상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복락과 안식과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이스라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지지 않는다. 구약성경, 특히 욥기서와 전도서에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음조를 듣게 된다(욥 7:21; 전 3:20; 시 115편; 사 38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은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마지막 말은 죽음과 죽음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끝이 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의 나라에 내려가시고, 거기서부터 올라오신다(삼상 2:6).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죽음과 부패의 힘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

17) 참고, 최태영,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부활한다』 (서울: 도서출판 아름다운 사람들, 2000).

다. 신앙의 긴장 속에서도 죽음 자체를 통해서도 깨어지지 않고 경건한 자가 미래를 위해서 숨어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표현들이 있다(시 49편; 시 73:23-26; 창 5:24; 고후 2:9). 구약성경 두 곳에서는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사 26:19; 단 12:2). 다니엘서 12장 2절은 영생 또는 영벌이라는 이중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죽음을 통과한 후의 생명에 대한 언급은 구약성경의 몇 곳에서 더 나타난다(욥 19:25-27).

신약성경은 여기에 대해 더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신약성경 속에서 미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속에 서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원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삶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눅 20:38).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 이상을 의미한다. 깔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자신 곁에서 생명 가운데서 보전하신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생명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준다. 예수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여신다. 이 장소는 바로 칭의 받은 자들이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케 하는 장소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미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약속된 말씀을 바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용시켰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빌 1:23).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우리가 담

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께 영접되어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심 속에 있는 생명을 가리킨다. 신자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롬 8:38-39; 롬 14:8). 그리스도와의 결속성과 교제는 계속적인 실재성으로 남아 있다. 신자들이 죽을 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존재에 끝이 오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스테반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다(행 7:5).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통해서 폐기되지 않는 영생과 완전한 영광 속에서 나타날 영생을 가졌다(요 11:25). 여기서 우리는 영혼불멸성의 연속성이 아니라, 영생의 연속성을 발견한다.

죽음을 통해서도 폐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상이 구약성경 안에 나타나고,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자들은 그들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한다.

신자들은 임종 직후 이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대한다. "내 영혼이 내 생애가 끝나는 직후에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영접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다시 내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은 반명제적인 동기와 명제적인 동기를 담고 있다. 반명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 이후에 연옥이나 영혼의 잠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다. 명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는 죽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이다(눅 23:43; 빌 1:23).

가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담긴 내용으로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다는 표현이나 나중에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라는 표현

은 스킨라철학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이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같은 표현은 종교개혁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일상적인 언어용법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경에서 조차도(마 10:28) 이 같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인간학적인 용어에 얽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인간학적인 범주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와 의 교제가 실재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종말론적 기다림은 인간학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기독교론적으로 규정된다(롬 8:39). 그리스도와 교제 안에 있는 삶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삶이다(요 14:3).

죽음 즉시 영원한 기쁨이 이미 있으며, 이 삶 뒤에 완전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종말론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선금과 보증(aparchè/arrabon)로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신약성경적 사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의 완성을 기다린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죽음 뒤의 삶을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신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다(요 17:24).

요한계시록 6장 11-13절과 14장 13절로부터 우리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의 삶의 두 가지 특징, 즉 복락의 안식과 기다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깔뱅은 중간상태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논의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중간상태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한계로 만족하도록 하자. 곧, 싸움의 수고를 마친 경건한 자들의 영혼이 복된 안식에 들어가서, 거기서 즐거운 기다림 속에서 약속된 영광을 누리

는 것과 구속주 그리스도의 재림 시까지 미해결된 모든 일들을 기다린다.”<sup>18)</sup> 인간의 계속되는 실존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부터 규정되어진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생명이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가 지금,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1648)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 버린다(창 3:19, 행 13:36).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눅 23:43, 전 2:7).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히 12:23; 고후 5:1, 6, 8; 빌 1:23; 행 3:21; 엡 4:10).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눅 16:23-24; 행 1:25; 유 1:6-7; 벰전 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살전 4:17, 고전 15:51-52).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욥 19:26-27, 고전 15:42-44). 3.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동일하게

1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II xxv 6.

된다(행21:15, 요 5:28-29; 고전 15:42; 빌 3:21).<sup>19)</sup>

이중성은 기독교에서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status intermedius)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다양할지라도 다음의 사실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성서에나 기독교에서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과, 그 영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아 있다는 것과, 그 영혼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에 들어가서 같이 부활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멸망을 받을 사람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 고통의 세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성서는 가르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sup>20)</sup>

결론적으로, 육체적 죽음 직후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안식, 복락, 기다림)는 참으로 살아 있고,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눅 16:19-31; 살전 5:10), 무한한 복락과 안식의 상태 속에서(계 14:1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구속)을 고대하는 기다림의 상태 속에 있다.

#### 4.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

교회와 신학의 역사(歷史)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록 ‘부활’ 자체는 인정할지라도 부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과 다른 내용으로 그릇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두개인들(마 22:23; 행 23:8)과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고전 15:12)은 부활 자체를 부정했고, 바울 사도

가 전한 부활에 대한 전도를 받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부활의 도를 전한 바울을 조롱했다(행 17:32). 후메나오와 빌레도는 부활은 순전히 영적인 것이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일 뿐이라고 그릇되게 이해했다(딤후 2:17-18). 그러나 신약성경은 물론(요 5:25-29; 요 6:39-40, 44, 54; 요 11:24-25; 요 14:3; 17:24; 살전 4:13-16; 고후 5:1-10; 계 20:4-6), 구약성경에도(출 3:6; 해 11:10, 13-16, 19; 시 49:15; 73:24-25; 잠 23:14; 욕 19:25-27; 사 26:19; 단 12:2)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1-14절과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유명하다.

#### 1)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8-9). 부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다(요 5:21, 25, 28-29; 요 6:38-40, 44, 54; 살전 4:16).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요 5:21).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롬 1:4).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26-127).

20) 이중성, 『중계 이중성저작전집19: 소논문집: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구원』, 365-366.

## 2) 부활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몸의 부활’이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고전 15:35).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20, 23)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골 1:18; 계 1:5)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몸의 부활이었듯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그리스도처럼 몸의 부활이다. “이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23; 고전 6:13-20; 롬 8:11; 고전 15:35-49).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하).

## 3) 부활 이전의 몸과 이후의 몸의 차이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고전 15:53; 고전 15:50-54). 우리의 부활 이전의 우리의 타락한 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몸이고,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장차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런 몸이 될 것이다.

## 4) 이중부활

이중부활(二重復活)은 두 종류의 부활 즉,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가리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행 24:15; 단 12:2).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몸으로 부활하지만, 부활의 결과와 내용은 정반대인데,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부활이요, 비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영원한 죽음과 수치의 부활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셨다.(행 17:31)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심판을 부여해 주셨다(요 5:22, 27). 그 날에는 배신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 6:3; 유 1:6; 벰후 2:4),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의 청산을 받으며,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후 5:10; 전 12:14; 롬 2:16; 롬 14:10, 12; 마 12:36-37).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기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롬 9:23; 마 25:21) 사악하고 불순종하는(롬 2:5-6; 살후 1:7-8; 롬 9:22)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을 얻을 것이다(마 25:31-34; 행 3:19; 살후 1:7).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마 25:41, 46; 살후 1:9; 사 66:24).

죄를 버린 모든 사람에게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대하여 큰 위로를 주기 위한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셨다(벰후 3:11, 14; 고후 5:10-11; 살후 1:5-7; 눅 21:27-28; 롬 8:23-25). 마찬가지로 그 날을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들이 모든 육적 안전감을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다(마 24:36, 42-44; 막 13:35-37; 눅 12:35-36; 계 22:20).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임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마 3:2; 4:7).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교회가 형성됨에 따라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 된다(마 13:31-33; 막 4:30-32; 눅 13:18; 17:21).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성도들과 함께 영속된다(고후 5:1; 계 21:1-7).

## V. 노년에 대한 이해

### 1. 노년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 죽음과 임종(臨終)에 대한 정의

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는<sup>21)</sup> 사망을 심폐 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 기능의 소실인 뇌사로 판단하여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물학적 죽음은 뇌, 심장 등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장기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의학대사전은 죽음을 생명의 정지,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 법률적·의학적 목적을 위해 전체 뇌기능, 호흡계의 자발기능, 순환계의 자발기능의 모든 것의 비가역적 정지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정신, 심리학적 죽음은 회복될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이며, 사회적인 죽음은 사회 환경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상태로 현실세계로부터 완전히 위축되는 것이며, 종교적 차원의 영혼의 죽음은 신으로부터의 이탈(離脫)을 뜻한다.<sup>22)</sup>

21) 이전에는 “대한의학회”로 불렸다.

22) 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돌, 『노인복지론』(서울: 공동체, 2010), 360.

죽음의 유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의 유형에는 생물적 죽음, 의학적 죽음, 사회적 죽음, 법적 죽음이 있다.<sup>23)</sup> 생물적 죽음은 호흡과 심장과 같은 인간 장기의 기능이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호흡정지, 심장정지, 동공확대를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삼중후설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뇌세포가 사멸하여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뇌사를 생물적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그 후 2000년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의학에서의 생물적 죽음은 세포사, 즉 모든 체세포의 기능 상실로 생체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화학적, 물리적 또는 전기생리적 활동을 잃어 인체의 세포가 불가역적인 상태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법적 죽음은 의사가 죽음을 판정한 후 이를 기초로 죽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 죽음은 생명이 유지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살아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죽은 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죽음의 형태는 이른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죽음의 판정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학적 또는 법적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죽음(death)과 임종(dying)에 대한 정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임종은 죽어가는 과정, 죽음은 생명이 정지된 상태로 볼 수 있다.<sup>24)</sup>

#### 2) 노인 또는 노년에 대한 정의

국어사전은 “노년(老年)”(old age)은 “늙은 나이”, “늙은 때”로, “노년

23) 이은희, 『新노인복지론』(서울: ㈜학지사, 2013), 328-329.

24) 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돌, 『노인복지론』, 360.

기(老年期)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기”, “늙은 단계에 적어든 시기”로 정의한다.<sup>25)</sup> 노인을 지칭할 때, 영어권 국가에서는 늙은 사람(older person, older), 나이든 사람(aged), 연장자(elderly), 선배시민(senior citizen), 황금연령층(golden age) 등으로 표현하고, 회색머리카락을 가진 사람(grey, gray), 일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실버(silver)라는 표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 등이 있으나, “늙은이”는 자칫 비하의 느낌을 줄 수 있고, 근래에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사용된다.<sup>26)</sup> ‘노년’이라고 할 때는 노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면이 있으며, 노년기는 인간발달단계가 영아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되는 인생주기의 한 단계이다. 그리고 고령(高齡)이라고 할 때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 있고, 노령(老齡)이라는 단어는 젊음에 비하여 늙음이 강조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정의할 때(identifying the elderly)의 기준으로는 역연령(曆年齡; 달력상의 나이), 사회적 역할, 늙음 자체, 그리고 늙음에 대한 자각 등이 적용된다. 미국 애리조나 마리코파 인디언(Maricopa Indian)은 손주를 가진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sup>27)</sup>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정의할 때,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55세 미만이다.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의 노인은 60세부터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서는 회갑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어 만

60세부터 노인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오히려 ‘칠순 잔치’를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인의 경계를 70 세로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sup>28)</sup>

또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있는바, 노인은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노인 특유의 보수, 온건, 의존, 경직(鯁直)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된다.<sup>29)</sup> 노인에 대한 인위적(人爲的) 정의를 따를 경우, 달력상의 연령, 기능적 연령, 사회적 노인(퇴직 이후부터의 노인),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70~74세 사이를 노인으로 생각함)이 있다.<sup>30)</sup>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정서적·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과정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년을 변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 그리고 본인의 주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년”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강조되고 있다.<sup>31)</sup>

### 3) 노년기의 특징

노년기의 특징은 다양하지만, 노년기에는 특히 신체적, 인지적, 성격적,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32)</sup> 노년기에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영역

28) 윗글.

29) 윗글.

30) 윗글, 23-24.

31)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夏雨, 2001), 15.

32) 사미자, “3. 노년의 심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70-75; 최고은, “노인을 위한 기독교적 죽음교육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12), 36-41.

25) 국어국문학회 김수,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7), 517.

26) 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돌, 윗글, 22.

27) 윗글, 22.

은 바로 신체적, 생리적 변화로 인한 쇠퇴이다. 각 사람의 노년기에 따라 인지적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노년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잘 생기지 않는다. 노년기에는 우울증이나 애착심 등이 증가하는 등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노년기에는 은퇴와 건강 등으로 정적이기도 왕성한 사회 활동이 약화되어, 사회와의 고립 내지 단절로 고독감과 소외감을 갖게 된다.

## 2. 노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1) 노년에 대한 정의

구약과 유대문화에 약 100회 정도로 자주 발견되는 장로란 낱말은 본래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자켄’에서 나온 말로 처음에는 종교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어른’, ‘늙은이’, ‘연장자’의 뜻으로 사용되어졌다. 처음에 문중이나 지파 및 부족사회의 어른이나 연장자에 사용되던 평범한 용어가 공동체 생활의 발전과 함께 점차 지역사회의 덕망 있고, 권위 있는 대표자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술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복수로 등장하는데, 이 장로 그룹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고대 근동 여러 민족 공동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창세기 50장 7절에는 애굽의 장로들이, 민수기 22장 7절에는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언급된다.<sup>33)</sup>

김중은에 의하면, 범죄로 타락하기 이전,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은 늙고 병들어 죽은 것을 모르는 낙원의 환경 속에 나타났다.<sup>34)</sup> 김중은은 창세기 몇몇 구절 등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창세기 본문은 비교적 일찍부터 인간수명의 한계를 일반적으로 12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5)</sup> 구약과 신약 시대의 평균수명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려우나, 구약의 경우 유다 왕들을 기준으로 할 때, 44세 정도로 추측된다.<sup>36)</sup> 그리고 은퇴 연령은 구약의 레위인들의 경우, 회막이나 성전 일을 50세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민 4:3),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며, 원칙이고,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지켜진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직업들에 적용된 것도 아니다. 모세의 기도 시편은 “우리의 연수는 칠십이요, 강건하면 칠십”이라고 기록하고(시 90:10) 있지만, 구약의 묵시문학적 문맥에서 이상적인 노년은 100세이다(사 65:20).<sup>37)</sup>

성경은 인생을 보통 세 단계, 즉 어린이, 성인(13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하든지, 네 단계, 즉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결혼한 남녀), 노년기(렘 51:22)로 나누고, 노년을 다시 노인과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을 구분하기도 한다(렘 6:11).<sup>38)</sup>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서약한 몸값은 인생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① 60세 이상: 남자(은 15세겔), 여자(은 10세겔) ② 20~60세: 남자(은 50세겔), 여자(은 30세겔) ③ 5~20세: 남자(은 20세겔), 여자(은 10세겔) ④ 1개월~5세: 남자(은 5세겔), 여자(은 3세겔) 위의 도표에 의할 경우, 60세 이상의 여자의 가치는 남자만큼 그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약시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더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노동)을 한 것을 이해되고, 남녀 공히 60세가 지나면 은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39)</sup>

김중은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년으로의 전환은 빠르면 50세에 시작하여 늦어도 60세부터 노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0)</sup>

35) 윗글, 45.

36) 윗글, 46.

37) 윗글.

38) 윗글.

39) 윗글, 46-47.

40) 윗글, 47.

33) 성종현, 『신약성서의 중심주제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392-393.

34) 김중은, “2.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45.

## 2) 노년에 대한 양면적·이중적 특징: 부정적 특징과 긍정적 특징

성경은 노년의 특징을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점차 쇠약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약성경과 고대 중동세계는 노인의 표시로서 무엇보다도 흰머리(백발)를 언급한다(삼상 12:2). 흰머리와 함께 노년은 시력, 청력, 미각과 치아의 약화 내지 상실과 함께 기운이 약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슌8:4), 불면증, 걱정, 욕망의 감퇴를 경험하며,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시 71:9)을 느낀다.<sup>41)</sup> 전도서는 노년에 죽음에 이르는 쇠약의 과정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전 12:1-8).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구약성경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년은 인생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상실의 단계로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종국으로 이해한다.<sup>42)</sup>

구약성경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 이외에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구약성경에서 노년이 존중받는 것은 단순히 흰 머리나 흰 수염 때문만이 아니다. 존경받는 백발도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백발도 있다(잠 16:31; 전 4:13; 시 119:100; 왕상 2:9).<sup>43)</sup> 고대 중동세계와 성경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은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과 지혜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sup>44)</sup>

결론적으로, 성경의 노년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이중적이고, 양면적이다. “노년의 특징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쇠약과 은퇴의 단계를 가리킨다. 생물학적 노년의 삶은 전도서

의 비유와 같이 허무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노인의 백발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의 성취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식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위되는 노년의 삶은 가치 있고, 존귀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에는 중요한 사명과 할 일들이 주어져 있다.”<sup>45)</sup>

## VI. 기독교적 죽음과 노년의 관계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상태(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6)</sup>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죽음에 항상 직면해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노년뿐만 아니라, 유아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탄생 순간부터 죽음에 직면할 수 있으며, 죽음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노년기는 죽음에 더욱 직면해 있는 시기인데, 죽음의 의미를 직시함으로써 죽음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노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교육은 노인에게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sup>47)</sup>

우리나라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① 죽음은 시간의 제약 또는 종말이다. ② 죽음은 현세에서의 존재의 소멸이며, 무(無)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③ 죽음은 삶의 연장, 즉 또 다른 세계나 윤회나 환생, 영생을 의미한다. ④ 죽음은 삶의 경험, 가족 등과 같은 소중

41) 윗글.

42) 윗글, 48.

43) 윗글, 49.

44) 윗글, 48.

45) 윗글, 50.

46) <http://www.who.int/>

47) 최고은, “노인을 위한 기독교적 죽음교육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12), 45.

한 것의 상실이다. ⑤ 죽음은 형벌이다. ⑥ 죽음은 힘든 삶에서의 해방이고, 쉽다. ⑦ 죽음은 섬뜩한 저승사자 또는 부드러운 성령이다. ⑧ 죽음은 차별성을 극복하고, 잘못된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며, 사랑했던 사람과의 재결합을 가져다준다. ⑨ 죽음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sup>48)</sup>

노인들은 육체적, 심리적 상실과 생산적 일과 독립성의 상실로 자신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인격적 존엄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쾨니그(Koenig)는 건강하거나 아픈 노인들 모두가 12가지 측면에서 영적 요구들이 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러한 영적 욕구는 노인들의 삶과 인격에 스며들게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과 사회와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노인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요구들과 맞물리는 교육이 필요하다.”<sup>49)</sup>

퀴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다시 말하면, 제1 단계는 부정(否定)과 고립(孤立)의 단계이고, 제2 단계는 분노(忿怒)의 단계이고, 제3 단계는 타협(妥協)의 단계이고, 제4 단계는 우울(憂鬱)의 단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순응(順應)의 단계이다.<sup>50)</sup> 그러나 퀴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단계 구별은 중년의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므로 모든 노인이 그가 제시한 다섯

48) 이은희, 『新노인복지론』, 329-330.

49) Harold G. Koenig, *Aging and God: Spiritual Pathways to Mental Health in Midlife and Later Years*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1994), 238. 재인용. 임창복·이연구·최명희, 『교회노년 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육연구원, 2008), 166.

50) Elisabeth Kübler-Ross, 『인간의 죽음-죽음과 임종에 관하여-』 (성명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79), 65-202.

단계를 일정하게 거치는 것은 아니다.<sup>51)</sup>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4:4).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다(마 14:17).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며, 자기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존재이다. 노년기에는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포용력이 많아지며, 성격이 원만해지고, 지혜가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가질 수 있다.

역사상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자는 정년퇴직 이후 68세부터 73세 사이에 주옥같은 경전(『논어』)을 저술하였으며, 인간의 정신단계를 연령에 따라 6단계로 구별하였다. 15세에는 인생을 고민하며, 배움에 정진하고(學), 30세에 주체를 확립하여 입장을 가지며(立), 40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 정직해지고(不惑), 50세에 타고난 소질을 발휘하여 하늘의 사명에 따라 자신의 할 일을 알며(知天命), 60세에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 실천하고(耳順), 70세에는 일이나 해동에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不踰矩)<sup>52)</sup>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죽음을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다. 죄로 인해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한번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여 심판을 받는다(히 9:27).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죽음 직후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복

51) 이은희, 『新노인복지론』, 331.

52) 『論語』 爲正篇 제4: 子曰: “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십오 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삼십 세에 섰으며, 사십 세가 되어서는 미혹되지 아니하였고, 오십 세가 되어서는 하늘이 내게 명한 뜻을 알게 되었고, 육십 세가 되어서는 귀가 순해졌으며, 칠십 세가 되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넘어서는 안 될 틀을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

락(福樂)과 안식(安息)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루어질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모든 인간은 자연적 생명, 곧 녹색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 이 자연적 생명을 상실함으로써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영적인 생명, 곧 적색생명을 가지게 되어 영생한다.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낸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녹색생명을 잠정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적색생명을 영원히 얻을 수 있다.<sup>53)</sup>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노년기의 그리스도인은 자연적 생명의 관점에서는 나날이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명의 관점에서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창조질서의 관점에서는 날마다 쇠퇴하지만, 구속질서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고후 4:16).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여 가지만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후 5:1)는 것이 성경적인 노년의 인생관이다.”<sup>54)</sup>

김중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네 가지로 심도 있고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sup>55)</sup> 첫째, 백발(흰 머리)로 대표되

는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대한 은총으로 이해된다. 둘째, 성경에서 노인은 존경받아야 하며, 노인의 존재는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노인에게는 후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노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생을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넷째, 성경의 노인은 그 임중에 즈음하여 그 후손들에게 노래나 유언(신 32장; 왕상2:1-2; 창 49:1-28; 삼하 23:1-7)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인은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 노년에 이러한 믿음(딤후 4:6-8, 필자주)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노년은 분명히 인생의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56)</sup>

노년기의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의 질서와<sup>57)</sup> 두 가지 종류의 생명과 두 가지 종류의 우물(요 4:1-26)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는 땅에 있는 우물로부터 솟아나는 자연적인 물과 다른 하나는 하

53) 최윤배, 『성경적 개혁적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적 기독교적 조직신학 입문』, 531-532.

54) 김중은, “2.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50.

55) 윗글, 50-55.

56) 윗글, 55.

57) 최윤배, 『영혼을 울리는 설교』 (용인: 킹덤북스, 2012), 158-161.

늘에서 내려온 우물로부터 솟아나는 영적인 물이다. 불과 마찬가지로 물은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지난 번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주었지만, 해마다 우리가 겪었던 태풍과 홍수를 동반하는 물은 우리에게 슬픔과 큰 재앙을 가져다주었다. 자연적인 물이 가져다 주는 이 같은 양면성은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6-11절은 물이 가져다 주는 풍성함을 말씀해주고, 창세기 2:5-6절은 물이 없는 곳의 가뭄과 갈증을 예고해 주신다. 창세기 7장 23-24절의 노아의 홍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창세기 9장 8-17절에 나타난 무(물)지개는 물로 인한 심판이 면제된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출애굽기 14장 1-24절의 홍해기적 사건의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물이요,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었다. 출애굽기 15장 22-26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물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넣지 않을 때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지만, 그 나무를 넣은 다음에는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민수기 20장 2-13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자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 12:3).

두 가지 종류의 물과 우물에 대한 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사건 속에서 잘 나타난다(요 4:1-15).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피곤하셔서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 이 때 과거에 남편을 여섯 명이나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녀의 정식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쉬시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고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기서 야곱의 우물과 우물로서 예수님 자신이 대조를 이룬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길러낸 물은 식수용, 세수용, 설거지용, 세탁용, 가축용, 농수용 등으로 사용되어진다.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낸 물은 외적이고, 육적이고, 자연적인 것이어서, 마

셔도 목이 마르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소모적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실존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며, 영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실존을 말씀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4장 10-15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 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기독교인은 우리의 실존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선물을 받아 든 사람 치고 기뻐하거나 안절부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기독교인은 우리가 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분은 바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강같이浩浩 수 같이 하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사야서 55장 1-2절은 자기의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수고와 자기 도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 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초청하는 감미로운 위로의 초청장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

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6-7).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 :1-2).

영적인 기독교인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찾으신 바가 된다는 사실과 그 분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기 전에 그 분 곁에 쉬면서 그 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기를 원하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분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 스스로 우물을 파거나, 생수를 만들거나, 생수를 길어 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생명수 되시는 성령과 생수를 제공하시는 어린양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실존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 한계 속에서 곤궁과 죽음 가운데로 치닫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은혜의 강물 속에 자신의 문제와 문제의 전 실존을 던져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의 타는 목과 가슴을 축이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그리스도인은 웰빙(well-being)을 무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웰빙에만 매달리지 말고, 품위 있는 죽음(well-dying)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쌓아서, 행복하고도, 복된 노년기를 보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

이해야 할 것이다.

## VII. 결론

우리는 본 논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기술로부터 본고를 시작했다.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해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기독교적 죽음 이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다. 영혼과 육체의 요소로 구성된 전인(全人)은 죄로 인해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나누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맞볼 것이며, 모든 인간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 영적인 죽음 속에서 태어나며,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임종 즉시 육체는 땅에 남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복락과 안식을 얻으며,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일어날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은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한 현관문이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55세 미만이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이며, 당사자들인 노인들은 노인을 70~74세부터로 생각하는 추세이다. 성경에서는 노인을 50세부터 시작하여 60세로 생각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

성경에서 노인에 대한 특성은 부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노인은 특히 네 가지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사회는 웰빙(well-being)을 매우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노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웰빙과 관련하여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만 완전히 몰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적 생명은 매일매일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계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노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웰빙의 차원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 VIII. 참고문헌

- 강희창,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말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김군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문경, 『말씀의 성육신 요한신학』 (서울: Violet, 2011).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박수암, 『신약신학주제사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배정훈, 『하늘에서 온 지혜: 잠언, 전도서, 욥기에 대한 정경적 이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
- 서혜경, 『노인죽음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2009).
- 성중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돌, 『노인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0).
- 이은희, 『新노인복지론』 (서울: 학자사, 2013).
- 이정남, 『죽음의 의미: 불교 · 독교 · 기독교 · 현대과학의 생사관』 (서울: 전망사, 1980).
- 이종성, 『춘계이종성저작전집13: 조직신학대계: 종말론(1)』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 이종성, 『춘계이종성저작전집14: 조직신학대계: 종말론(2)』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 배요한,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이야기』 (서울: IVP, 2014).
- 임창복·이연구·최명희, 『교회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8).
- 최고은, “노인을 위한 기독교적 죽음교육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윤배, 『성경적·개혁적·복음주의적·에큐메니칼적·기독교적 조직신학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 최대영,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부활한다』 (서울: 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2000).
- 한국성시신학연구소 편, “서론”, “특집: 성경에 나타난 ‘종말’, 「성서마당」 Vol. 109 (2014 봄).
- 한국조직신학회 엮음,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한자경, 『동서양의 인간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서광사, 2001).
-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夏雨, 2001).
- 황명환, “죽음이해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신학박사 학위 논문, 2010).
- Greshake, Gisbert, *Zukunft. Tod. Auferstehung. Himmel. Hölle* (심상태 옮김) 『종말신앙 죽음보다 강한 희망』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5).
- Greshake, Gisbert/Kremer, Jacob, *Resurrectio Mortuorum: Zum theologischen Verständnis der leiblichen Aufersteh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2).
- Kagan, Shelly, 『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옮김), (서울: 엘도라도,

2012).

Kübler-Ross, Elisabeth, 『인간의 죽음-죽음과 임종에 관하여-』 (성  
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79).

Moltmann, Jürgen,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곽미숙 옮  
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annenberg, Wolfhart, *Was ist Mensch?: Die Anthropologie der Gegenwart  
im Lichte der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Ratzinger, Joseph, *Eschatologie: Tod und ewiges Leben* (R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Regensburg, 1990).

Sauter, Gerhard,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하여: 종말론 입문』  
(최성수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1999).

Schaeffer, Francis A., 『오염과 인간의 죽음 <생태학 서설>』 (임흥빈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78).

Vorgrimler, Herbert, 『죽음오늘의 그리스도교적 죽음이해』 (심상태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5).

Wolff, Hans Walter,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옮김), (왜관: 분도  
출판사, 1985).

Wolff, Hans Walter,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문희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왜관: 분도출판사, 1985).

검색어

노인

죽음

기독교

복지(웰빙)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d the Age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Choi Yoon Bae, Dr. theol.

Systematic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attempts to draw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d the age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e penalty which God announced to man in paradise was death. Death here intended is not that of the body, but that of man as a whole being in the Scriptural sense of the word. The Bible does not know the distinction, so common among us, between a physical death, a spiritual death, and an eternal death. I have a synthetic view of death and regard it as a separation from God.

Church traditions generally hold that the disembodied spirit will be united with the natural body that died on earth. The truth in this conception is that nothing of significance is really lost. There is a substantial, but not an exact, material identity between the final glorified body and the earthly body.

“Though our outward man perish, yet the inward man is renewed day by day” (2 Cor 4:16). “The days of our years are threescore years and ten

... yet is their pride only labour and sorrow. For it is soon cut off, and we fly away.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apply our hearts into wisdom” (Ps 90:10-12).

#### Key words

the aged  
death, Christianity  
well-being  
well-dying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



#### ▶ 구약성서 연구와 해석 ◀

- 하계상(삼육대)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 모창조(서울기독대) 이삭의 77 (창 27:27-29, 39-40; 28:3-4)에 대한 고찰: (창 17:1b-8 아브라함 언약과의 비교를 통하여)
- 우택주(침신대)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과 그 제사장적 편집 작업에 나타난 수사적 의도
- 한동구(평택대) 이스라엘 진영(민 1-4장)에 반영된 이스라엘의 꿈
- 김선종(호남신대) 다윗의 기브온 정책(삼하 21:1-14)
- 박철우(나사렛대) 예언자들의 체험적 영성에 관한 고찰
- 오민수(킬 대학)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 소형근(서울신대) 페르시아 시대 이집트의 우자호레스네트와 유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